

머릿말

머릿말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세계의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가늠할 13개의 문제를 낸다. 그리고 그 문제를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틀린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무작위로 선택한 것보다 낮은 비율로 틀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사실은 곧 사람들은 세상을 체계적으로 왜곡해서 보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람들의 오답 비율이 쏠리는데 그 이유를 저자는 인간이 세상을 인지하는 본능에 기인했다고 판단한다. 그 본능이 체계적인 왜곡을 만들고 있다는것이다. 그렇게 이 책은 현재 인간이 머릿속 세상과 사실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를 보여주면서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체계적 오류를 10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한다.

1장 간극 본능

핵심메시지 : 사람들은 세상을 두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을 별개의 두집단으로 구분해서 인식하는것은 사실 세상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

대체로 세상에는 중간에 다수가 존재하고 양 극단에 소수가 존재한다. 또는 두집단은 상당수가 겹치기도한다. 세상을 두집단으로 분류하면 중간의 다수를 놓치거나 겹치는 부분을 무시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 서구 문명의 상당 수가 세상을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그 중간에 존재하는 다수의 국가들을 놓치는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상을 좀더 사실과 가깝게 보기 위한 방법으로 4단계 구분을 제안한다.

여기서 두가지 맥락이 존재하는데 첫번째는 세계적인 차원의 대표적인 오해를 바로잡는 이야기이다. 인류의 대부분이 극빈층으로 최소한의 교육과 의료지원도 못받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틀렸고, 이런 왜곡된 이해를 기반으로 세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잘못된 결과를 불러 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에 따른 4단계 구분을 알려준다. 두번째는 좀더 일반론적 이야기이다. 억만장자와 극빈층, 최악의 정권과 최고의 정권 등 처럼 우리의 삶에서 쉽게 접하는 왜곡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 사례에서도 중간의 다수가 빠져있다는것을 지적한다.

중간의 다수를 놓치는 것이 어떤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수 있는지는 기업가의 사례가 잘 와 닿았다. 세계를 둘로만 나누면 중간의 다수라는 큰 시장을 놓치고 작은 시장만 바라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것이 놀랍고 사실에 충실하게 바라보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 사례였다. 아마도 서구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굶어죽는 사람이 존재하는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간극 본능을 자극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다. 재벌과 서민이라는 분류, 진보와 보수라는 분류 등,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 양극단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중간의 사람들을 인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사회의 선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사실충실하기 위한 요약정보가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있다.)

사실 충실성 지금 저 이야기는 간극을 말한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별개의 두 집단이 서로 간극을 두고 존재하는 그림을 가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현실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곳에 대다수가 존재한다, 다수를 보아야한다. 평균비교, 극단비교,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각을 조심하라.

2. 부정본능

다음 중 어느 말에 가장 동의 하는가

세계는 점점 좋아진다.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

세계는 점점 좋아지지도 점점 나빠지지도 않는다.

위 질문에 응답한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50%이상)은 세계는 점 나빠진다고 대답했다.

시리아 내전, 테러, 바다오염, 온실가스로 인해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 2008년의 미국 주택시장 붕괴 등. 세상에 나쁜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주로 이런 뉴스들이 다루어진다. 세상이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사실은 뉴스꺼리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의 기대수명은 몇 세일까?

사망 원인과 고통 원인을 모두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평균 기대수명은 거기에 매우 근접한 수치다. 인재나 자연재해에 따른 아동 사망과 조기 사망, 출산 중 산모 사망, 노인 수명 연장등이 모두 이수치에 반영된다. 이 수치가 높아졌다는것은 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1800년대까지는 세계 어느곳이나 기대 수명이 대략 30세였다. 오늘날 세계 기대 수명은 약 70세다.

지난 200년동안 세계는 좋아졌다.

스웨덴은 1800년대에 기대수명이 30세도 넘지 못하는 1단계 상황 이였다. (오늘날 기대 수명이 50세 이하인 나라는 없다.) 스웨덴의 1950년대에는 오늘날 이집트와 비슷한 3단계였다.

스웨덴은 지금 4단계에 와있다. 스웨덴이 기대수명 30세도 안되는 1단계에서 현 4단계에 도달하는데 200년이 걸렸지만 오늘날의 국가들은 훨씬 짧은 시간에 걸쳐서 발전하고 있다

사실 스웨덴 뿐만아니라 거의 모든나라가 거의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 줄어드는 나쁜것 16가지와 늘어나는 좋은것 16가지 통계를 소개한다.

줄어드는 나쁜것 16가지 : 노예제, 기름 유출, 값비싼 태양광 패널, HIV감염, 아동 사망, 전쟁 사망, 사형, 유연 휘발유, 항공기 사고 사망, 아동 노동, 재난 사망, 핵무기, 천연두, 매연입자, 오존층 파괴, 굶주림

늘어나는 좋은것 16가지 : 새로 나온 영화, 자연보호 구역, 여성의 투표권, 새로 나온 음악, 과학, 작향, 탈문맹, 올림픽 참가국과 팀, 아동과 청소년 암 생존률, 초등학생 연령 여자아이 중 학교에 다니는 비율, 관찰 대상 종, 전기 보급, 휴대전화 물, 인터넷, 예방접종

그리고 발전의 궁극적 목표인 문화와 자유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1인당 기타 보유 수는 그러한 측정을 대신할 좋은 지표다. 그리고 반값게도 그 수치는 높아졌다.

부정본능

부정본능 좋은 것 보다 나쁜것에 더 주목하는 본능이다. 여기에는 세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하나는 어려웠던 과거를 좋았던 것처럼 회상하거나 어려웠던 과거를 잊는것 처럼 과거를 잘못 기억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부정적인 사건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보도 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상황이 나쁜데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면 냉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부정 본능을 어떻게 억제 할까

나쁘지만 나아진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자는 뜻이 아니라, 상황이 나쁠 수도 있고 동시에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경우, 만사 오케이니 마음 폭 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 일까? 전혀 아니다. 상황이 나쁜 것과 나아지는 것 중 선택을 해야만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둘다 옳다. 상황은 나쁘면서 동시에 나아지고 있기도하고, 나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나쁘기도 하다.

사실충실성

지금 저 뉴스는 부정적 면을 보도한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우리에게 전달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부정본능을 억제하려면 나쁜 소식을 예상하라.

나아지지만 나쁘다.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안 된다.

점진적 개선은 뉴스가 안 된다.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고통이 더 큰 것은 아니다.

장밋빛 과거를 조심하라

경험담

개인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코칭하다 보면 부정본능에 빠진 사람들을 꽤 만난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확대한다. 하지만 어떤 경험이든 그 과정이 모두 부정적인 일로만 가득차 있지는 않다. 비록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코칭할 때는 부정적인 사건은 알겠으니 긍정적인 사건들도 찾아보자고 권한다. 흥미로운점은 사람들이 점진적인 개선같은 긍정적인 사건을 자신의 경험에서 잘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작은 긍정적 사건에는 주의를 두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런것이 아닐까 싶다. 이럴 때 나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좀 더 세분화해보자고 권유한다. 그냥 실패한 프로젝트, 망한 경험으로 한 묶음이 된 경험을 (팩트폴니스에서 세계를 4단계로 나누는것처럼) 다양하게 나누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안보이던 것이 보인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것(나쁘지만 나아지고 있다는것)을 깨닫는다.

2014년 8월부터 서아프리카에 출현한 에볼라의 세계보건기구 연구 논문이 나왔다 .감염자는 1-2-3-4-5 처럼 직선으로 증가하지 않고 1-2-4-8-16처럼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감염자 1명이 사망전에 2명이상에게 병을 옮겼다. 그러다 보니 하루당 새감염자수가 3주마다 2배로 늘었다. 9주(2배 증가가 세번 반복되는 때)가 지나면 상황은 8배 더 절박해 질 것이다. 문제를 3주 늦게 처리할 때마다 감염자 수는 2배로 늘고, 필요한 자원도 2배 늘어날 거

란 얘기다. 세계 모든 사람처럼 나 역시 에볼라 위기의 규모와 위급함을 너무 늦게 알았다. 상황 악화가 직선으로 진행되려니 생각했지만, 데이터를 보면 2배로 빨라지고 있었다. 사태를 좀 더 빨리 파악하고 더 빨리 행동을 취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계 인구는 ‘단지’ 증가하고 또 증가할 뿐이라는 거대 오해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관계된 중요한 수치중 하나는 인구다.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인구는 한계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진 인구에 대한 인식에는 인구는 ‘단지’ 증가하고 있다는 거대한 오해가 있다.

실제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앞으로 13년 동안 약 10억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인구는 ‘단지’ 증가하지 않는다. ‘단지’라는 말에는 그대로 두면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인구 성장을 막으려면 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오늘날 세계 인구 중 0-15세 아동은 20억이다.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의 이 수치는 몇일까? A. 40억, B. 30억, C. 20억

이 설문에서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의 일반인들은 85%가 오답을 냈다. 세계경제포럼 전문가들의 정답률도 26%에 불과했다.

미래 아동수는 세계 인구 예측에서 가장 본질적 수치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 논쟁을 통틀어도 핵심이다. 이 수치를 모른다면 다른 많은 문제도 오해하게 된다. 유엔의 전문가들은 2100년 아동 수를 오늘날과 같은 20억으로 예상한다. 즉 아동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

직선 본능

인류가 농사를 발명한 기원전 8000년전에는 세계의 총 인구가 500만이었다.이 수치는 거의 1만년 동안 천천히 증가하다가 1800년에 이르러 10억을 돌파했다.이때 부터 상황이 돌변했다. 이후 고작 130년 만에 다시 10억이 늘었다. 그리고 100년도 채 안되어 또 50억이 늘었다. 이런 가파른 증가에 사람들은 당연히 우려를 표시했다.

내게 날아오는 돌을 보면 그 돌이 나를 맞힐지 대개는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자동 시각 예측 기술이 우리 조상의 생존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자동차가 몇 초 뒤 어떤 위치에 있을지 끊임없이 예측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삶에서 직선적 직관이 늘 믿을 만한 안내자 노릇을 하는건아니다.

내 손주 중 가장 어린 미노는 태어날때 약 50cm였다 그리고 6개월 뒤 67cm로 자랐다. 직관적으로 기존의 선을 미래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면 세번째 생일에는 키가 152cm가 되고 열번째 생일에는 4m가 넘을 것이다. 이경우 직선 직관은 명백히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이렇게 친숙한 주제가 아니면, 그런 단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상상하기가 뜻밖에 무척 어렵다.

최근 인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미 둔화하기 시작했다. 유엔의 인구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십 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제법 확신한다. 그리고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인구 곡선이 100억과 120억 사이에서 평평해질 거라고 예측한다.

인구 곡선 형태를 이해하려면 인구 증가의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유엔은 2100년까지 40억의 인구가 늘어 날것으로 예상하고 주로 성인인구(15-74세)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한다. 유엔의 전문가들은 아동인구의 증가세는 이미 멈췄다고 보고한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수가 1965년을 기점으로 평균 5명에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50년동안 이 수치는 2.5명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2장에서 언급한 다른 모든 발전과 동시에 일어났다. 수십억 인구가 극빈층을 탈출하면서 이들 대부분이 아이를 적게 낳기로 결심했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농사를 위한 대가족이 필요 없게 되었다. 아동사망에 대비해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도 없어졌다. 여성과 남성이 교육받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먹이고 싶은 욕구도 생겼다. 그러려면 자녀의 수가 적어야 했다. 이러한 목표는 성생활을 줄이지 않고도 아이를 적게 가질 수 있는 현대 피임법에 의해 한결 쉽게 달성되었다.

극빈층 탈출이 계속 이어지고 교육 받는 여성이 늘어나는 한, 그리고 피임법 사용과 성교육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 여성 1인당 출생아 수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별도의 극적인 변화는 필요치 않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좀더 열심히 하면 그만이다.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30억 늘어서 도표를 채우기 때문이다. 채움효과가 발생하기 까지 3대가 걸리고(15년씩 3회), 3대가 지나면 그 효과는 끝난다.

“가난한 아이를 구하면 인구는 ‘단지’ 늘어난다”는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극빈층 탈출이 늦어질 때 인구는 ‘단지’ 늘어난다. 인구 성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하게 증명된 방법은 극빈 층을 없애고, 교육과 피임을 비롯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삶이 나아진 부모는 자녀를 더 적게 낳는 쪽을 선택했다. 이러 변화는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 아동 사망률을 낮추지 않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곳은 없었다.

모든 선이 다 직선이 아니다.

인구 성장이든 그 밖의 다른 상황이든 항상 직선을 상상하는 본능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은 세상엔 여러 형태의 곡선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것을 직선이 아니라 S자 형태, 미끄럼틀 형태, 낙타 혹형태 같은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직선 - 직선은 생각보다 훨씬 드물지만 어쨌거나 없는 건 아니다. 긴수명과 높은 소득도표에서 직선을 발견할수 있다. 소득수준을 교육, 여성의 결혼 연령, 여과 활동비와 비교해도 직선을 발견할수 있다.

S 자곡선 - 소득을 초등교육이나 예방접종 비율 같은 삶의 필수 요소와 비교하면 S자 곡선이 나타난다. 이런 요소는 1단계에서는 낮고 평평하다가 2단계에서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다가 3단계와 4단계에서 곡선이 다시 평평해진다. 이미 그런 것을 다 갖추었다는 뜻이다.

미끄럼틀 곡선 -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곡선은 미끄럼틀을 닮았다. 유니세프는 제약 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을 벌였다. 장기 계약을 보장하면 가격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낙타 혹 곡선 - 1단계와 4단계 나라에서는 낮는데, 중간 단계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다수 나라에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교통사고는 1단계 나라는 1인당 자동차 수가 적어 교통사고도 적다. 2,3단계 나라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은 걷고, 그 밖의 사람은 승합차나 오토바이, 자동차로 다니기 시작한다. 하지만 도로와 교통 규제, 교통안전교육이 여전히 부족해 교통사고는 정점에 이른다. 그러다가 4단계로 오면 다시 줄어 든다. 모든 아동 사망에서 익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이와 비슷한 곡선을 그린다.

2배 증가 곡선 - 소득이 늘어날수록 연간 이동 거리는 꾸준히 2배씩 증가한다. 소득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다. 이산화탄소 배출 역시 소득에 따라 2배씩 증가한다. 각 단계별로 소득이 2배씩 증가한다.

우리가 관측한 직선은 다른 곡선의 일부일수 있다. 연관된 두 점이 있으면 직선으로 보이지만, 점이 3개 있을때는 그것이 직선인지 아니면 2배 증가 곡선의 시작인지 구별할 수 있다. 어떤곡선이 눈에 보이는 부분 너머로 어떻게 연장될지 안다고 단정 할 경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 엉터리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충실성

사실충실성은 지금 그 이야기는 도표와 선이 계속 직선으로 뻗어나가리라 단정한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그런 선은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것이다. 직선 본능을 억제하려면 세상에는 다양한 곡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